

미래의 주역 인항인

활기찬 인항의 학생 여러분! 사천여 근로자들과 더불어 인항의 교지 제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황량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일하는 우리 사천여 근로자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과, 우리들이 답답해 했던 무지의 어둠을 결코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뭉쳐 인항고교를 설립한 지 어언 4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들의 바램과 여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노고가 1회 졸업생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고, 이제 2회 졸업생 배출이라는 벅찬 감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회 졸업생들은 신생학교로서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천 지역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므로써, 우리 인항 고등학교의 튼튼한 입지와 빛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4년전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며 출범한 인항고등학교가 이제 단단한 반석위에서 웅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항의 발전 주역은 바로 학생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드높은 기상과 성실한 노력이 선배들이 세운 전통을 더욱 드날리며, 인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인항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바램을 대표해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당부의 말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많은 성현과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정직'은 고결한 것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 가운데는 안일하게 살려는 풍조가 있고, 쉽게 산다는 이유로 '정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나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부둣가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신성한 노동의 댓가로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설립자 대표 이 강 희

땀흘려 일하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의지가 깃들인 인향고등학교의 학생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효행'입니다. '효행'은 인류의 기본으로 우리 학교의 교훈에도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 자신의 근본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이상과 정열을 가졌어도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는 효행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회나 국가는 가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번영이 곧 국가의 화합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정직과 질서 보다는 부도덕과 부조리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학생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의 주역이자 사회의 주역입니다. 학생들의 정직한 삶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가 흐트러진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가장 좋은 교육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설립자를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92학년도에는 인향인들의 오랜 숙원인 체육관의 개관과 기타 교육시설들을 완비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면학 열기에 부응하여 장학금도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인향의 주역으로서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곳곳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역군들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학교를 오늘처럼 단단한 반석 위에 오르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쳐오신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